

# 빌헬름시대 독일의 제국주의\*

정상수(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 1. 사회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독일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독일 제국주의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주변 인접 지역으로의 팽창 정책으로 대변되는 러시아의 제국주의나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식민지 확대에 주력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제적 제국주의와 달리 독일 제국주의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체 해외투자의 2% 만을 자국 식민지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sup>1)</sup> 독일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식민지 획득을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복잡한 독일 제국주의를 하나의 모델로 분석하려 했던 역사학자가 벨러 Wehler였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역사학자인 케어 Kehr의 내정우위 Primat der Innenpolitik에 입각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해서 케어가 설명하지 못한 비스마르크에 의한 1883/85년의 식민정책을 규명하려 하였다.<sup>2)</sup> 나아가서 빌헬름 제국에서의 대표적인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인 “세계정책 Weltpolitik” 역시 이러한 내정우위의 가설에 입각해서 설명하였다.<sup>3)</sup> 벨러의 사회제국주의 Sozialimperialismus는 이러한 내정우위와 부정적 통합 negative Integration에 의한 결집정책 Sammlungspolitik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다. 벨러에 따르면 독일은 외정적인 근거에서 식민정책이나 “세계정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

\* 이 논문은 1996년 10월 31일 서울대 독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강연 원고를 약간 수정, 보완한 것임.

1) 1912년에 독일 수입의 0.4%, 수출의 0.5%가 자신의 식민지 지역을 상대로 행하여졌다. (Karl Erich Born,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des Deutschen Kaiserreichs 1867/71-1014, Stuttgart 1985, S. 149.)

2) Hans-Ulrich Wehler, Bismarck und der Imperialismus, Frankfurt 1985.

3) Hans-Ulrich Wehler,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1988, S. 177.

위해서 이러한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1914년 7월 위기에서 “앞으로의 도피 Flucht nach vorn”를 하게 되어서 전쟁을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했다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내정적 어려움을 외부로 전환시킨다는 벨러의 사회제국주의 이론은 당시의 중요한 사실적 예외를 지니고 있다. 1898년 왜 프랑스는 파쇼다 위기 Fashoda-Krise에서 영국과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프랑스는 내적으로 드레퓀스 Dreyfus 대위 사건과 파나마 운하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벨러의 사회제국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프랑스는 1898년 영국과 전쟁을 함으로서 내정적인 위기를 외부로 전환시켜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적 패배를 감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데는 주변의 내정적, 즉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 우선하였다는 사실을 도의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870/71년의 통일은 단지 외형적인 통일에 불과하였다. 문화적, 지역적 차이와 계층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내적 분열을 가져왔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독일의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독일 지도층은 억압, 탄압 그리고 여론 조작을 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간의 화합은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이 아니라, 위로부터 조작된 부정적 통합이었다는 것이다. 사회제국주의 이론의 중요한 전제는 1870년 이래 독일 정부와 정치적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가장 커다란 적은 사회 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실제의 적은 당시 노동자 중심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였고, 벨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황태자 프리드리히 빌헬름을 중심으로 한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영국 자유주의자들과의 결합을 막기 위해서 반영정책의 일환으로서 1883/85년 식민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sup>5)</sup>

벨러는 사회제국주의 이론을 비스마르크 이후, 즉 1890년 이후의 독일

4) Ebd., S. 192.

5) Paul Kennedy,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London 1988, S. 170f.

에도 적용시켰다. 그는 1895/97년의 세계정책의 시작을 당시의 국제관계에 서가 아닌 독일 산업발전의 해외진출이라는 내정적 요소에서 찾음으로서 빌헬름 제국에서의 외교정책의 독립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가들에 의해서도 400년 이상 유효한 이론으로 간주되어져 온 “세력균형”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독자적인 역할을 사회제국주의 이론을 대체시킬 수는 없다.<sup>6)</sup>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 역사학 New History”과 프랑스의 아날 Annales학파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사회사 Sozialgeschichte라는 새로이 역사를 파악하는 관점을 형성해서 기존의 실증주의적인 전통 사학을 붕괴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1970년대 이래로 새로운 교조주의 Neue Orthodoxie를 형성하였다.<sup>7)</sup> 독일의 사회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관의 서구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었고 1960년대 후반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역사학계에서 일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up>8)</sup>

독일 제국주의는 단순히 한가지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뒤늦게 참여한 후발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 제국주의는 최소한 세 가지 형태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관제제국주의 der gouvernementale Imperialismus,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der indirekte ökonomische Imperialismus,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der radikale nationalistische Imperialismus가 그것이다.<sup>9)</sup> 이들은 정부, 기업과 은행, 대중단체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외교정책, 해외 투자와 무역, 여론 형성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면서 상호 협조체제이기도 하였지만 갈등관계 속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 6) Otto Pflanze, Bismarcks Herrschaftstechnik als Problem der gegenwärtigen Historiographie, in: Historische Zeitschrift 234 (1982), S. 594.
  - 7) 1970년대 초 크레이그는 사회사의 영향으로 정치사가 퇴조된 역사학의 영향을 비판한 적이 있다. (Gordon A. Craig,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in: Felix Gilbert/Stephen R. Granbard (Hrsg.), Historical Studies Today, New York 1972, S. 356ff.)
  - 8) Wolfgang J. Mommsen, Der autoritäre Nationalstaat. Verfassung, Gesellschaft und Kultur im deutschen Kaiserreich, Frankfurt 1992, S. 318.
  - 9) Ebd., S. 186.

## 2. 독일 제국주의의 세 가지 형태

### 2.1. 관제제국주의

빌헬름 시대 대표적인 관제제국주의는 “세계정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세계정책은 벨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사회제국주의적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관속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1885년경을 중심으로 유럽 중심의 강대국체제, 즉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한 5대강국 Pentarchie체제는 세계 강대국체제 globale Mächtekonstellation로 전환되었다.<sup>10)</sup> 중요한 변화는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하강과 신생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상승이었다. 또한 이 시기를 중심으로 각국의 식민정책은 간접적 지배형태에서 직접적인 지배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Hochimperialismus). 식민지 보유의 과다는 한 국가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을 대변하게 되었다. 각국의 힘에 비례한 식민지의 재분할 Wiederaufteilung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요한 식민지 대상지역은 힘의 공백상태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그리고 중국, 터키와 같은 반독립국가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유럽정책의 틀을 벗어나 세계 도처의 권력 공백지역에서 식민지를 새로이 획득하거나 자신의 세력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세계정책을 추진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유럽에서의 독일 지위의 공고화였다. 1895년 독일은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하게 간섭했다.<sup>11)</sup> 1870/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통일 이후에 독일이 처음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개입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유럽에서 독일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확고히하고, 당시 막 성립되었던 러·프동맹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데에 있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동아시아 정책은 동부전선에서의 독일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 주었고, 동아시아에의 영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대립은 세계 강대국체제에서 독일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 다른 한편에서 황제 빌헬름 2세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정책의 운

10) Paul Kennedy, *Aufstieg und Fall der großen Mächte*, Frankfurt 1992, S. 301f.

11) 청·일 전쟁과 관련된 독일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Rolf-Harald Wippich, *Japan und die deutsche Fernostpolitik 1894-1909*, Stuttgart 1987 참조.

호자들은 아직 힘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던 터키,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식민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7년 12월 6일 독일 외무장관 빌로 Bülow는 자신의 첫 번째 제국의회 연설에서 미래의 독일제국의 외교정책의 포부를 밝혔다. 당시 독일은 중국의 청도를 강제 점령함에 의해서 러시아, 영국, 일본과 같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은 비록 커다란 간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중국 무역에서 영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영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중국에서 확실한 무역 거점이나 세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중국 북부에서, 영국은 양자강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공고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중국에서 힘의 공백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곳은 이들 두 강대국의 세력권의 중간지대인 산둥반도 지역이었다. 독일은 이곳에 상공업거점과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였다.<sup>12)</sup> 이러한 상황에서 빌로는 청도 점령과 관련해서 이른바 양지 Platz an der Sonne 정책을 표방하였고 다른 제국주의 열강처럼 독일도 역시 적극적으로 식민지와 세력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up>13)</sup> 이후 독일은 본격적으로 세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계정책은 이전까지의 유럽에서의 독일의 강대국 Großmacht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세계대국 Weltmacht으로 향한 전진이었다. 독일은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세계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에 의해서 1901/02년에, 1904/05년에 그리고 1907년 삼국협상의 성립과 함께 좌절되었다.<sup>14)</sup>

12) 독일의 청도점령에 대해서는 Sang Su Jung, Deutschland und das Gelbe Meer. Die deutsche Weltpolitik in Ostasien 1897-1902, Frankfurt 1996, S. 29ff를 참조.

13) Rede Bpöows im Reichstag, 6. 12. 1897, Behnen, Quellen, Nr. 85.

14) 독일 "세계정책"의 좌절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영미사가들은 1907년을, 포겔은 1905년을, 본인은 1901/1902년을 "세계정책"이 좌절된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John Lowe, The Great Powers, Imperialism and German Problem 1865-1925, London 1994, S. 149ff; Barbara Vogel, Deutsche Rußlandpolitik, Düsseldorf 1973, S. 201ff; Jung, Deutschland, S. 175).

## 2.2.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독일이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늦게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독일 산업화의 후발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늦은 1850년대에 산업화에 착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위의 두 나라보다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었다.<sup>15)</sup> 19세기 후반 산업화는 독일의 산업 기술과 조직력에 힘 입어 크게 발전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도 선진 외국의 제품과 충분히 경쟁할만 하였다. 이전부터 상품시장과 원료의 공급지로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산업과 달리 독일 산업은 전적으로 자신의 상품의 질의 우세와 가격의 저렴함을 통해서 상품시장을 개척하였다. 1890년대 이래의 산업화 제 2기의 중요한 산업분야인 철강, 화학, 전기산업에서 독일은 자신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켰다.<sup>16)</sup> 이러한 독일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은 -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의 식민지 지역과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한 저개발 지역을 수출 대상 지역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 소비재 산업 제품이 아니라 생산재 산업 제품을 필요로 했던 산업 국가들이었다.

독일 은행들 역시 영국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에 비교한다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뒤늦게 발전을 시작하였지만 체계적인 조직력으로 세계 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이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 상업적인, 특히 해외 중개 무역의 필요와 더불어 형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독일 은행들은 처음부터 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당시의 독일 은행들은 대규모의 국제적인 투자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sup>17)</sup> 독일 금융에서의 자금 부족이 치명적인 정치적인 패배로 연결된 경우가 모르코 위기의 해결을 위한 1906년의 알제시라스 회담에서 었다.<sup>18)</sup> 이러한 자본 부족을 독일 은행

15) Born,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S. 38ff.

16) Ebd., S. 20f.

17) Mommsen, Nationalstaat, S. 196f.

18) 알제시라스 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대립하면서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 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의 패배와 1905년 혁명의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6억 루블의 (약 20억 프랑) 장기 차관을 필요로 했다. 베를린은 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제

들은 그때 그때마다 다른 외국의 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터키에서의 자금 투자는 프랑스 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동아시아에서 독일 은행은 영국 은행과 협력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 2.3.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은 새로운 대중주의적 제국주의의 형태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주의적 선동단체들에 의해서, 즉 전독일연맹 Alldeutscher Verband과 함대연맹 Flottenverein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신의 정당성의 기반을 대중들에게서 찾았고, 독일 정부와 정치가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계층은 전통적인 교양시민계층, 산업화의 발전 과정에서 탄생한 신흥 중산층, 소시민계층이었다. 이들은 독일 제국에서 정당들이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던 시기에 정치의 주변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침투해서 대규모의 대중 동원 능력을 보유한 일종의 압력단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단체들의 지도부는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조작했음에는 틀림없다. 이들은 맹목적이고 과격할 정도로 독일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하였지만, 이들은 정치가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정치적 식견이나 안목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로 과격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제국주의 정책을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이들은 곧 신우파 Neue Recht로 대변되면서 무한계의 팽창정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요구는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여론의 형태를 띄우고 있었기에 관료와 군대에 의해서 유지되

---

공하는 대가로 알제시라스회담에서 외교적인 지지를 요구하였다. 프랑스는 알제시라스 회담이 자신에게 만족할만한 성과로 종료된 뒤 즉시 위의 액수를 러시아 정부에게 40년 상환으로 제공하였다 (Barbara Vogel, Deutsche Rußlandpolitik, Düsseldorf 1973, S. 229; Born, Internationalen Schuldenkrisen des 19. Jahrhunderts, i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4 (1988), S. 25).

는 의사입헌 군주국인 독일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가 없었다.<sup>19)</sup>

당시의 독일은 서구 민주주의적인 여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사회를 서구 민주주의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1914년의 이념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독일제국은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서구의 모델을 도입하는 대신에, 독일 고유의 관헌적인 입헌국가라는 형태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규제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행정작용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적 자유 Deutsche Freiheit”라는 이념은 실질적으로 서구 민주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다원화된 산업사회의 이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sup>20)</sup>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민족주의 단체들은 대중들을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독일연맹, 합대연맹을 통하여 자신들의 조직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강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해외에서의 식민지 획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상과 현실과의 간극을 체험했을 때 정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층 노동자계층에 대해서까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독일에서만 나타났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이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징고이즘, 프랑스의 쇼뱅이즘, 미국의 내선널리즘이 이러한 조류에 해당한다.

### 3. 독일 제국주의의 실태

#### 3.1. 합대정책

19세기 말부터 해군장관 티르피츠(Tirpitz)에 의해서 수행된 합대정책은 독일 제국주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전함 건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합대정책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의 제국주의가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97년 당시의 외무장관 빌

19) Mommsen, Nationalstaat, S. 192f.

20) Wolfgang J. Mommsen, Nation und Geschichte, München 1990, S. 94f.



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세계정책”은 강력한 무력에 의한 지원, 특히 해군의 지원이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다. 함대정책은 또한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조직된 함대연맹에 의해서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수산업가들에게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함대정책에 대한 연구는 독일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1920년대에 탈하이머, 할판, 케어에 의해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 냉전의 시기에 다시 한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1)</sup> 독일 함대정책의 목표는 스테인버그가 밝힌대로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문제는 티르피츠의 함대정책에 그 밖의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베르그만은 독일 함대정책의 목표가 영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정적인 측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sup>22)</sup>

분명히 티르피츠에 의한 함대정책은 빌헬름 제국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이루었다. 먼저 해군 수뇌부내에서 1897년 티르피츠가 해군성을 넘겨 받기 전까지는 대양정책에 입각한 식민지 획득을 목표로 하는 순양함 정책이었다. 물론 전함정책은 독일 해군부에서 티르피츠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해군 총사령관 크노르 Knorr가 티르피츠에 앞서서 전함건조를 계획한 바 있었다.<sup>23)</sup> 티르피츠에 의한 독자적인 생각은 독일 해군의 위상과 대상이었다. 이전까지 독일 해군은 군사적인 면에

21) Siegfried Thalheimer, Das deutsche Flottengesetz von 1898, Düsseldorf 1926; Hans Hallmann, Krügeredepesche und Flottenfrage, Stuttgart 1927; Ders., Der Weg zum deutschen Schlachtflottenbau, Stuttgart 1933; Eckhart Kehr, Schlachtflottenbau und Parteipolitik 1894-1901, Berlin 1930; Jonathan Steinberg, Yesterday's Deterrent, Tirpitz and the birth of the German Battle Fleet, London 1965; Volker R. Bergahn, Der Tirpitz-Plan, Düsseldorf 1971.

22) Thomas Nipperdey, Deutsche Geschichte 1866-1918, Bd 2: Machtstaat vor der Demokratie, München 1992, S. 637f.; Klaus Hildebrand, Das vergangene Reich. Deutsche Außenpolitik von Bismarck bis Hitler 1871-1945, Stuttgart 1995, S. 197.

23) Denkschrift Knorrs, 17. 5. 1897, BA-MA RM 5/915.

서 거의 능동적인 활약을 하지 못하였다. 적국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입장보다는 수비에 치중하였다. 티르피츠는 해안 방어위주의 독일 해군을 본격적으로 공격위주의 함대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 새로운 점은 이전까지 독일 함대의 주요 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이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랑스 북해함대와 러시아 발틱함대였다. 프랑스의 지중해 함대와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영국 지중해 함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독일과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해군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 티르피츠는 독일 해군수뇌부에서 최초로 세계최강의 해군인 영국 해군 Royal Navy을 독일 해군의 가장 위협한 적으로 파악하였다.<sup>24)</sup> 당시 세계 해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곳은 지중해였다. 1898년 파쇼다 위기에서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더라면 지중해가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을 것이다. 세계 해군력의 무게 중심은 1914년까지 지중해로부터 북해로 이동하게 되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티르피츠의 함대 정책에 있어서의 내정적 요소들이다. 20세기 초의 독일 전함 건조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물론 독일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특히 선박 건조에 중요한 철강, 기계, 전기 산업분야에서의 발전은 티르피츠로 하여금 자신의 함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티르피츠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독일의 자본력이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독일 기업과 은행들은 자본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결국 1906년에 가서는 국가 재정의 위기로 연결되었다.<sup>25)</sup>

즉, 독일은 당시에 영국에 비해서 우월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선소 확장 및 신설, 운하건설 등 거대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충분한 자본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선박건조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은 충분한 재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우수한 전함을 건조할 수 있었지만

24) Denkschrift Tirpitz vom Juli 1897, Volker R. Berghahn, Wilhelm Deist, Rüstung im Zeichen der wilhelminischen Weltpolitik, Düsseldorf 1988, II, Nr. 10. - 그러나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에 대한 작전계획을 최초로 작성한 것은 1899년 11월이었다 (Ivo Nikolai Lambi, The Navy and German Power Politics 1862-1914, Boston 1984, S. 210ff.).

25) Born,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S. 141.

수적인 면에서는 티르피츠가 계획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sup>26)</sup>

티르피츠는 군인인 동시에 정치가였다. 1896년까지 티르피츠는 해군 장교로서, 해군 최고사령부 Oberkommando der Marine의 참모로서 본분을 충실히 실행하였다. 1896년 해군부에서의 권력다툼과 관련되어서 티르피츠는 일시적으로 베를린을 떠나게 되었고 1897년 해군성을 넘겨받게 되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전함건조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으며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티르피츠는 권력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동시대인인 니체의 권력에 대한 의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황제 빌헬름 2세의 총애와 더불어서 그는 해군 수뇌부의 개편에 착수할 수 있었다. 1899년 3월 티르피츠는 해군의 권력을 해군성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해군 최고사령부를 해체시켰다.<sup>28)</sup> 이후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함건조에 반대하는 순양함 정책 옹호자들을 축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1902년 경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티르피츠는 1898년과 1900년 두 차례에 걸친 함대법 서문에서 건함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로서 독일 해외무역의 보호를 거론하였다.<sup>29)</sup> 그러나 해외무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선대를 보호할 수 있는 순양함을 건조하는

26) 독일 전함은 1900년 경에 이미 여러 면에서 영국 전함을 질적으로 압도하였다. 독일 크롭Krupp의 장갑과 대포는 성능에 있어서 영국 제품을 능가하였다. 독일의 카이저 프리드리히 3세급 Kaiser-Friedrich III-Klasse 전함의 (12000톤급) 대포들은 최초 전투개시 5분동안 38톤을 포격할 수 있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영국에 의해서 건조된 카이저 프리드리히 3세급보다 4000톤 컷던 메제스틱급Majestic-Klasse은 동일한 시간에 단지 24톤만을 포격할 수 있었다 (Theodore Ropp, *The Development of a Modern Navy*, Annapolis 1987, S. 297). 20세기초에 영국은 터빈모터에서만 기술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전함의 전투력에서의 열세를 모터의 속력에서의 우위로 극복하려고 한 시도가 1906년의 거함 Dreadnought의 개발이었다 (Charles H. Fairbanks, *The Origin of the Dreadnought Revolution*, in: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13(1991), S. 268f.).

27) Michael Salewski, *Tirpitz. Aufstieg-Macht-Scheitern*, Frankfurt 1979, S. 60.

28) Walter Hubatsch, *Der Admiralstab und die obersten Marinebehörden in Deutschland 1848-1945*, Frankfurt 1958, S. 81ff. - 당시 해군 최고사령부의 해체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황제의 측근은 빌헬름 2세의 동생인 하인리히 왕자Prinz Heinrich von Preußen였다. 그는 티르피츠가 해군수뇌부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었다 (Heinrich an Wilhelm II., 28. 10. 1898, BA Koblenz NL16/111; Heinrich an Diederichs, 1. 8. 1899, BA-MA N255/11).

29) Flottengesetz, BA-MA RM3/2.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티르피츠의 복안을 파악할 수 있다. 1897년 이미 티르피츠는 영국을 독일의 적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를 표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티르피츠가 후에 밝힌대로 독일 해군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영국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폴레옹시대의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벨슨의 영국 해군은 1806년에 아직 건조 중에 있는, 영국에 위협이 되는 프랑스의 동맹국인 덴마크 해군을 공격한 경우가 있었다. 즉, 영국 해군은 독일 해군이 자신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판단되면 후자가 건조중에 있는 시기에 전자가 기습공격해서 파괴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Copenhagen-Komplex).<sup>30)</sup> 물론 티르피츠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일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국 제해권의 격파였다.

정부는 제국주의적 외교·군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일반 대중집단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독일 제국은 당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정부는 사안에 따라서 제국의회 Reichstag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육군 예산안의 경우는 프로이센 주의회 Landtag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던 반면에 해군 예산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3급 선거제에 의해서 구성되는 프로이센 주의회에서는 토지귀족과 상층 시민계층을 중심으로한 친정부 세력이 대다수였던 것과 달리 제국의회는 일반 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에 정부에 반대하는 가톨릭 중앙당, 좌파 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프로이센 주의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군장관 티르피츠에 의해서 설정된 건함정책이 이러한 제국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티르피츠는 제국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중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압력단체(전독일연맹, 합대연맹)를 이용하였다. 즉 압력단체들에서 정부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였다.<sup>31)</sup>

30) Hildebrand, Das vergangene Reich, S. 201; Jonathan Steinberg, The Copenhagen Complex, 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1(1966), S. 23ff.

31) 신설된 해군 정보국을 통한 티르피츠의 합대정책 선전에 대해서는 Wilhelm Deist, Flottenpolitik und Flottenpropaganda, Stuttgart 1976 참조.

### 3.2. 바그다드 철도

독일은 1888/89년 터어키의 소아시아 반도에서의 철도 수주권을 획득하였다.<sup>32)</sup> 당시 영국은 터어키에서의 독일의 등장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영하였다. 터어키 제국에서의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독일의 힘을 빌려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897년 그리이스와의 전쟁 이후에 터어키 측에서도 철도를 통한 교통, 통신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제국의 와해를 막으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소아시아 반도에서의 철도를 페르시아만까지 연장시키려는 계획이 등장하였다.<sup>33)</sup> 이 거대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는 당시에 독일이었다. 그러나 황제 빌헬름 2세가 1898년 11월 8일 다마스쿠스 방문에서 독일제국이 3억 이슬람 교도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선언을 하였을 때 런던 정부는 터어키 제국에서의 독일의 야심을 알게 되었고 즉각 경계에 들어갔다. 바그다드 철도 수주는 단순히 독일에게 경제적 측면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세계 교역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는 유럽과 인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였다. 물론 당시 해상강국 영국이 자신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 항로의 (런던-지브롤터-수에즈-홍해-인도) 안정을 지키고 있었다. 1881/82년의 이집트의 합병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초 이 항로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러시아에 의해서였다. 터어키제국과 페르시아로의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영국의 인도항로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독일제국 역시 1895/97년 세계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동아시아와의 무역로 확보를 고려하게 되었고 1900년 의화단의 난과 연관해서 대규모 해군과 육군의 파견을 통해서 영국의 도움없이 동아시아에 조속한 시일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의 영국의 인도항로가 아닌 새로운 육로를 (베를린-비인-비잔티움-페르시아만) 확보하려 하였다. 따라서 독일제국은 바그다드 철도 수주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영국은, 인도교역로는 영국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바그다드 철도가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

32) GP 14, 2, Nr. 3958, 각주.

33) Marschall an AA, 4. 4. 1900, GP 17, Nr. 5220; Marschall an AA, 2. 2. 1902, GP 17, Nr. 5247.

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sup>34)</sup> 러시아는 터키제국의 공고화에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국가로 바그다드 계획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sup>35)</sup> 유럽에서 독일의 강력한 적대국인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 처음부터 소극적이기는 하였지만 독일과 협업에 들어갔다.<sup>36)</sup> 이러한 바그다드 철도 사업을 고찰해 보면 독일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과 기업, 은행 차원에서의 해외투자 사이에 협력이, 그러나 동시에 갈등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인 바그다드 철도 수주에는 독일기업과 은행들도 동의하였지만 과도한 자본투자를 통한 위험을 제거하려 했던 - 물론 자본부족에서 유래하기도 하였지만 - 기업과 은행측은 대외적으로 적대국인 프랑스 자본과 협력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 4. 세 가지 제국주의의 상호관계

정부에 의한 관제제국주의, 기업과 은행에 의해서 주도된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대중 집단들에 의한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는 함대정책과 바그다드 철도 수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에서도 보완과 갈등이라는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1890년 이후의 대외무역은 이전의 자유주의 시대의 무역과 달리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관세장벽을 건설하게 되었고 대외무역에 있어서 기업의 독자적인 영역이 점점 축소되게 되었다. 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이 정부의 지원을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이나 은행의 투자는 많은 경우에 외국 정부와 분쟁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본국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군사력, 주로 해군력을 이용해서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1900년의 화단의 난 진압을 위한 서방연합군의 파병이었다. 독일은 영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대규모의 육군과 해군을 파견하였고, 영국 다음으로 많은 배

34) Metternich an AA, 12. 6. 1903, GP 17, Nr. 5268.

35) Marschall an AA, 28. 2. 1900, GP 17, Nr. 5218.

36) Marschall an AA, 3. 5. 1899, GP 14, 2, Nr. 3985; Bülow an Marschall, 4. 5. 1899, GP 14, 2, Nr. 3986; Aufzeichnung Richthofens, 3. 7. 1901, GP 17, Nr. 5232; Marschall an AA, 4. 12. 1903, GP 17, Nr. 5276.

상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냈다.<sup>37)</sup> 1902/03년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철도” 건설과 관련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독일 기업과 은행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영국과 함께 베네수엘라 항구를 포격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구들을 봉쇄하였다.<sup>38)</sup> 이 경우는 정부 주도하의 관제제국주의가 간접적 경제제국주의를 보완해 준 사례이다.

은행과 기업에 의한 지원 없이 독일제국은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다. 19세기말 20세기초 독일이 “세계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은 함대와 외국 정부에 대한 차관이었다.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중국이나 터키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은 열강의 세력을 확대하거나 나아가서 상업거점이나 해군기지를 조차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은행은 중국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청·일전쟁 배상금 지불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했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제국주의는 많은 경우에 서로 충돌하였고 전체 국가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1899년 중국의 북경 부근에 있는 광산채굴권을 둘러싸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업들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39)</sup> 각개의 기업은 자국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당시 유럽에서 삼국동맹 Dreibund을 체결하였고 밀접한 군사적 외교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독일과 이탈리아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은 베를린과 로마 사이의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sup>40)</sup> 은행과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해외경쟁과 해외투자는 때로는 국제관계 차원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독일 정부에 의한 외교정책과 기업들에 의한 대외 무역은 심각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단지 수출의 12.8%가 삼국동

37) 독일과 의화단의 난에 관해서는 GP 16 참조.

38) GP 17, Nr. 5120, 각주; Holger H. Herwig, *Germany's Vision of Empire in Venezuela 1871-1914*, Princeton 1986, S. 97ff.

39) Castell an Hohenlohe, 5. 9. 1899, PAAA China 20 Nr. 1, 63.; Ketteler an Hohenlohe, 1. 11. 1899, PAAA China 20 Nr. 1. 64.

40) Bülow an Wedel, 3. 5. 1900, PAAA China 9 Nr. 1. 5.

맹의 국가들, 수입의 8.4%가 삼국동맹의 국가들과 행하여진 반면에, 독일 수출의 60%는 삼국협상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이루어졌고, 수입의 68%는 이들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지 지역에서 들어온 물품들이었다.<sup>41)</sup>

대중단체들(연맹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는 대외관계나 경제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국가내지는 민족의 무제한 팽창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벨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적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다.<sup>42)</sup>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강력한 식민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여론에 정부의 외교정책이 반대될 경우에 정부는 다른 강대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독일 외교정책의 실무자였던 홀슈타인 Holstein은 강력한 제국주의적 노선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대해서 1904년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에게 대해서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에서 [식민지나 세력권을] 획득할 수 없다. 나는 이와 같은 획득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대중들이 아우성치며 요구하고 있고 독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해서는 결코 해외정책이 불가능하다.”<sup>43)</sup>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독일 제국주의는 하나의 통합된 지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과 은행, 대중집단들이라는 서로 다른 주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제제국주의,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를 추진하였다. 이들 중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제제국주의가 독일 제국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는 하였으나 간접적 경제제국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를 적절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41) Born,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S. 149.

42) Mommsen, Nationalstaat, S. 192f.

43) Holstein an Ida von Stülpnagel, 10. 4. 1904, Behnen, Quellen, Nr. 143.